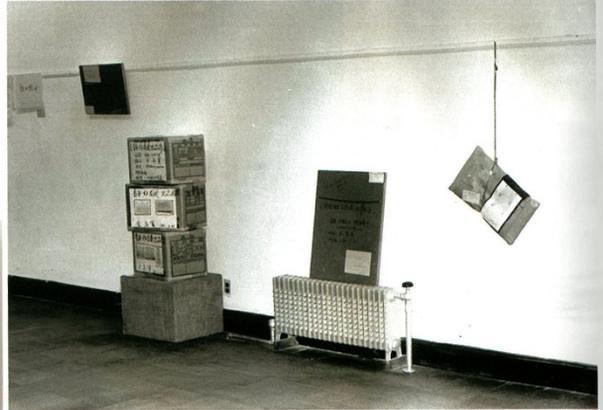


팔방미인 김용익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

February, 2011 | .

page 1 of 2

팔방미인 김용익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

큐레이터와 <팔방미인>전을 위한 사전 대답을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번 전시가 1970~80년대 작품을 모아 단순히 아카이브를 보여 주는 식이 되서는 안 되며, 어떤 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이란 말에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단순한 아카이브 전시도 '자연히' 해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뒤따르는 해석이 아닌 적극적 해석. 이번 전시에서 '나'는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 (이 카피는 인터뷰를 위해 내게 미리 제시된 질문 문항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로 상정했다.

한국의 1970~80년대는 1972년 유신 선포, 1974년 긴급조치 1~4호 발표, 1979년 박정희 피살, 1980년 광주항쟁, 뒤이어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정권 설립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정치 상황을 보여줬다. 이러한 1970~80년대에 내 인생은 1970년 입대, 1973년 제대, 1975년 졸업과 동시에 결혼, 이후 중고교 미술 교사 재직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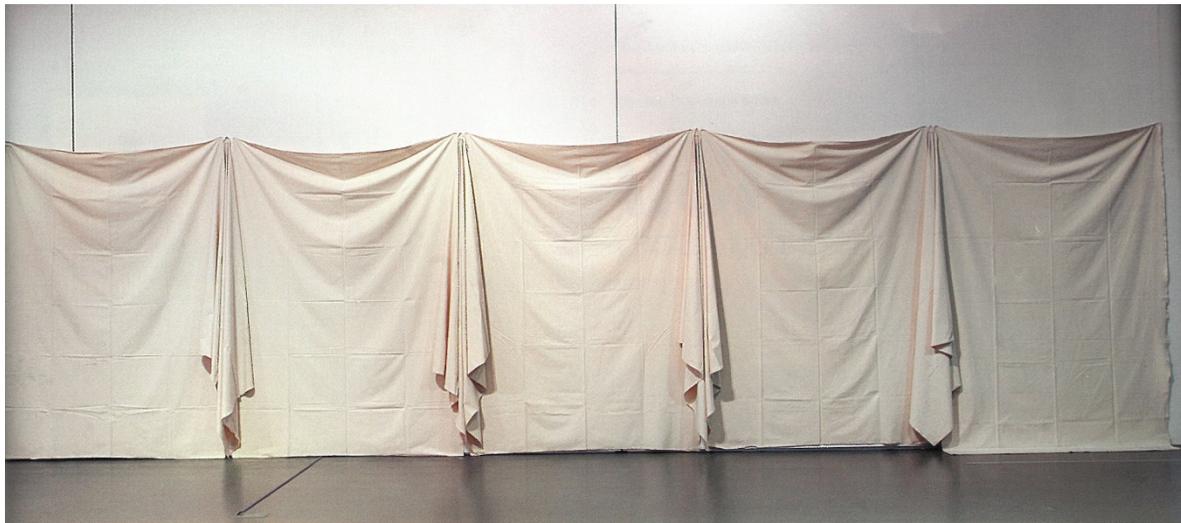
당시 모더니즘 미학의 기존 미술언어를 전복시키는 '미학적 혁명성'에 매료된 나는 이러한 현실정치 속에서의 '정치적 혁명성'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흠모하고 괴로워했다. 이러한 내게 쉽게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야, 네가 지금 하는 작업을 당장 때려치우고 현실 정치를 풍자, 공격하고 민중의 현실을 그리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네게 부족한 건 용기야!" 실지로 나를 정치미술의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차 후배들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정치 혁명적 모험을 불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은 인물이었다. 나는 후배들의 권유와 설득을 거절하며, 나 자신에게 정직한 작품을 하기로 맘먹었다. 생각해 보면 현실정치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혁명성과 기존 미술언어를 전복시키려는 미학적 혁명성은 결코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의 미학적 혁명성은 현실 정치적 혁명성의 미학적 꿈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의 착종(錯綜) 속에서 이러한 언술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나는 1973년 제대 이후 몹시 괴로워했고, 그런 와중에도 1974년부터 촉망받는 모더니스트로 자리매김되고 말았다.

나는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엄혹한 군부독재정권의 탄생을 묵묵히 지켜 봤다. 나는 미술언어를 전복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내 <평면 오브제> 시리즈 작업의 지속에 회의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 작업들을 198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작가>전에 선보였다. 기존의 천 작업을 포장지로 싸거나 박스에 넣고 캡션을 써넣은 작업, 액자를 끼운 작품을 뒤집어서 뒷면을 제시하는 작업, 1981년을 사는 소시민 예술가의 비통하고도 우울한 일상을 포토포에시 식으로 만든 <신혼의 겨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오늘의 상황>전에 작품을 포장해서 전시장에 가져온 후, 아직 개봉 안 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속이 비어 있는 상자뿐인 <오늘의 상황전>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팔방미인>전에서는 주로 1981년에 제작 발표한 작품을 재현한 것 위주로 내 부스를 구성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하기'로 1970~80년대의 내 작업을 해석해 보려 했기 때문이다.

김용익 1947년 서울 출생. 1975 홍익대 회화과 및 1980년 동대학원 졸업. 1975년 삼파울루비엔날레, 1977년 <한국현대미술의 단면>전, 1988년 <한국현대회화 70년대의 흐름>전, 1996년 <한국모더니즘의 전개 1970-90 근대의 초곡>전 등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 참여. 현재 경원대 교수로 재직 중.



위 · 〈평면-오브제〉 면에 잉크와 에어브러쉬 270×950×20cm 1978(1997년 재현)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 아래 왼쪽 · 〈가까이... 더 가까이...〉 세리그래프 100cm×70cm 1994, 오른쪽 · 〈가까이... 더 가까이...〉 세리그래프, 연필 100×70cm 1996, 아래 · 〈Four Pieces〉 합판에 페인트, 아크릴릭, 그리고 질라네기 접기 480×120cm 1989 | 오른쪽 위 · 〈스프레이작업 바리에이션〉 캔버스에 에어브러쉬 162×130cm 1978, 아래 · ㉔ 판자에 연필 100×100cm 1982 왼쪽 페이지 왼쪽 · 〈오늘의 상황전에〉 포장박스, 비닐끈, 잉크 80×80×15cm 1981(2010년 재현) 오른쪽 · 〈제1회 청년작가〉전 전경 1981

